

전남도, 확산하는 캠핑문화 체류형 관광 잇는다

26~28일 해남 오시아노서 첫 '전남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캠핑용품 전시, 불꽃축제·버스킹공연 등 체험거리 다채

전남도가 확산하는 캠핑문화를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잇기 위해 캠핑관광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전남도는 오는 26~28일 3일간 해남 오시아노 오토캠핑장에서 '2022 전남캠핑관광 박람회'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70여팀 2000여명의 캠핑객이 참여한다. 캠핑 장비 전시, 캠핑 체험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첫 날인 26일에는 오후 7시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미술, 난타공연 등이 이어진다. 주말인 26~27일에는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과 화려한 불꽃 축제 등이 펼쳐진다. 현대자동차 카라반, 지프(Jeep®) 오프로드카를 비롯해 차박용 캠핑카, 캠핑용품,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를 준비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가족·친구·연인이 함께 즐길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캠핑용품 만들기', '캠핑 요리 콘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위한 '안전 캠핑 아카데미'도 개최한다. 깨끗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플로킹 보물찾기 사회공헌 활동, 다문화가정 초청 캠핑 행사 등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성공적인 캠핑관광 박람회 진행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해남군, 오시아노 캠핑장 운영사인 ㈜파라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참가자 대상 사전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에는 측정, 방역게이트 설치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한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캠핑박람회는 참여자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해남 오시아노 오토캠핑장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광주, 공동주택 거주비율 84%...지원센터 상설화해야"

광주지역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대에 이른 만큼 공동주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비상설기구인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자문단 형식의 비상설기구인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상설기구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평환 시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가 주최했고 강은택 한국주택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송장영 광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문안규 광주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과 조영현 LH광주전남본부 임대사업부장, 서금석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이 토론회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1990년 32.9%에서 2000년 68.8%, 2020년에는 83.9%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구수 기준으로 2020년 현재 76.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단지수도 800여개로 최근 10년간 30.9%나 증가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청소관리에 큰 무중임 인원만 8700여 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층간 소음과 관리 문제 등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를 비롯 월동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상담과 컨설팅, 교육, 갈등 예방을 위해 자문기구 성격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운영중이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금석 광주시회장은 "5개 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는 기피부서가 됐고, 밀려드는 업무를 소화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혔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기구로 상설화해야 갈등 분쟁을 예방하는데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택 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출연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많다"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생활밀착형 행정인 만큼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창영 교수도 "공동주택의 노후화, 재난 등에 대해 예방에서 대응, 대비,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상설기구화를 촉구했다.

김재환 기자

이슬비 기자

전남도, 도민안전 위협시설 관리강화

민간전문가 등 참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중점 안전점검' 추진



전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중점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도민생활 밀접시설은 물론 최근 안전사고 발생 사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내 시설물 17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그간 행정기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완벽한 점검활동을 위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한다.

여기에 주민신청제, 점검실명제, 사후관리 책임제는 물론 3만여 시설물 관리주체 자율안전점검 등 도민 점검 참여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정부 점검 대상 선정기준과 별도로 '물놀이 등 행락철 위험시설 125곳',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위험지역 101곳', '폭우대비 침수우려지역 37곳', '도민생활 밀접시설인 소규모공공시설 100곳' 등을 추가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위험구역 설정은 물론 사용 금지,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를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공개해 관리기관과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도민 안전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모든 순간이 예술' 광주시, 미디어아트 공모전...오는 26일부터 9월 16일 접수

전문가·시민 모두 참여하는 행사

광주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도심 속 빛 축제의 장 '2022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하 GMAF)을 앞두고 제1회 GMAF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진행한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인 글로벌 신진 작가 발굴과 시민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예술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공모전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0초 챌린지 공모전으로 각각 진행한다.

미디어예술가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문가 공모전에는 미디어아트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과 팀을 포함한 국내외 미디어예술가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부문은 비디오 아트·실사 영상·모션그래픽·컴퓨터 애니메이션·게임·영상 등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오디오비주얼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전문가 공모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공모전에 최종 선발된 5명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과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기간 중 광주시가 보유한 다양한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일반 시민이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0초 챌린지도 진행한다. 도시 속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담은 60초 이내의 창의적인 영상을 찍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된다.

오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최종 선발된 7명에게는 총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미디어아트 도시이자 예술관광의 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일상 속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행사"라며 "도심 속 빛의 축제장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늬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저소득층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8,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2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